

주절에서의 서법 I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지난 호까지 우리는 헬라어의 7가지 시제인 현재(Present), 미완료(Imperfect), 단순과거(Aorist), 미래(Future), 현재완료(Perfect), 과거완료(Pluperfect) 그리고 미래완료(Future Perfect)의 직설법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 형용사(분사)와 명사(부정사)의 성격을 가진 동사 상당어 구라고 할 수 있는 분사와 부정사의 여러 용법들에 대해서도 몇 차례 살펴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 헬라어의 4가지 서법(mood)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려고 한다.

서법(mood)의 정의

헬라어 서법에는 직설법(indicative), 가정법(subjunctive), 희구법(optative), 명령법(imperative)이 있다. 일반적으로 태(態, voice¹⁾)가 주어와 동사의 동작

1) 태(態)라고 번역된 영어 voice는 목소리, 음색, 의견 등의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표현하는 문법 용어로 적절하

이나 상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표현하고, 시제(時制, tense)가 일차적으로 동작의 종류(the kind of action)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서법은 모두 해당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 편에서의 마음의 태도(an attitude of mind)를 반영한 동사의 표현 형태들이다.²⁾ 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 가지 서법 가운데 직설법이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진술(simple statement)이라면, 명령법과 가정법, 희구법에는 모두 사실이나 상태를 보는 화자의 주관적 요소들이나 태도가 가미되어 있다.

그러나 월레스(Daniel B. Wallace)는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이 서법을 단순히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만 정의하는 데는 다소간의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법을 단순히 화자의 태도로 규정하는 정의를 따른다면 서법이 마치 실재(reality)와 객관적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특별히 직설법에 대한 규정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직설법은 “단순한 사실”(simple fact)에 대한 확인이나 질문을 표현하는 서법으로 설명된다.³⁾ 그러나 그릇된 인식, 과장, 허구적인 설명 등이 모두 직설법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직설법을 단순한 사실을 묘사하는 서법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약점을 고려하여 일부 학자들은 서법을 “실재에 대한 화자

지 못하다. 한자인 태(態) 역시 동사에 관여하는 동작의 방향성에 관한 문법 형태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주어와 동사의 관계’나 ‘동작의 방향성’ 등의 뜻을 표현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있다. 영어 voice가 문법적인 의미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는 위클리프(Wycliffe) 성경 번역의 서언(prolegomena)에서인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διάθεσις*로서 이는 “조정, 배열, 조건, 상태, 의미, 기능” 등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이다. 월레스(Daniel B. Wallace)는 ‘동작의 방향성’이라는 뜻에서 turn이나 direction을 번역어로 제안하기도 한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Michigan: Grand Rapids, 1996), 408.

2)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20.

3) 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Edinburgh: T&T Clark, 1898), 73.

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mood as indicating a speaker’s perception of reality)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직설법이란 실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것을 정확히 묘사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비아냥거림, 과장, 허구 등은 실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화자 역시 이를 실재와의 일치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정확히 표현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월레스는 서법(敍法, mood)을 “화자가 동사로 표현되는 행동이나 상태의 확실성(그것이 실상[actuality]이거나 가능성[potentiality]에 지나지 않거나 간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의 형태론적 특성”(the morphological feature of a verb that a speaker uses to portray his or her affirmation as to the certainty of the verbal action or state[whether an actuality or potentiality])⁴⁾이라고 정의한다. 즉 서법이란 실재와의 상응 정도와는 상관없이 동사로 표현되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법을 “실재와의 상응 정도와는 상관없이 동사로 표현되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⁵⁾

4)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445.

5)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914-15는 직설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직설법(indicative)이 직설적인 서법(modus rectus)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실재(absolute reality)’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 직설법이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술**일 따름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줄곧 도움이 될 것이다. 직설법은 실재(reality, an sic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화자는 어떤 것을 사실로 **제시**한다. 물론 실상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허위 진술(untruths) 역시 직설법으로 진술된다”(강조는 원문의 것).

서법의 의미론

각 서법의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기 전에 다양한 서법이 전달하거나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⁶⁾

첫째, 서법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 각 서법들은 다양한 정도의 확실성(certainty)을 보여 준다. 즉 각 서법들은 실상(actuality)으로부터 가능성(potentiality)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표현에 담긴 “확실성의 연속선상”(on a continuum of certainty)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직설법은 통상 실재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묘사하는 다른 서법들과 구별된다.⁷⁾ 직설법을 제외한 나머지 서법들은 실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설법과는 달리 시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명령법이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현재의 동작이나 상황을 강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⁸⁾ 2) 명령법은 통상 의지(volition)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면, 희구법과 가정법, 그리고 특히 직설법은 인식(cognition)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둘째, 직설법은 모든 언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서법이다.⁹⁾ 즉, 직

6)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446-47.

7) 직설법과 달리 실재를 간접적으로 에둘러 표현한다는 뜻에서 직설법을 제외한 나머지 서법, 즉 명령법, 가정법, 희구법을 사격(斜格) 서법(oblique mood)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8) 시간적인 요소를 함께 표현하는 직설법을 포함하여 모든 서법의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작의 본질이나 종류, 즉 ‘Aktionsart’ (the kind of action)이다. 시제의 차이가 표현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동작의 종류인 것이다.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824;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66.

9) 월레스(Daniel B. Wallace)가 소개하는 빈도수에 따르면, 세계성서공회 헬라어신약성경 제3판(UBSGNT³)에는 직설법이 15,618회, 가정법이 1,858회, 명령법이 1,631회 그리고 희구법이 68회 나타난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설법은 “다른 서법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적인(normal) 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다른 서법을 채용하더라도 해당 서법이 항상 그 서법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 서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서법 사이의 분명한 문법적, 의미론적 구별이 용이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지 명령은 종종 명령법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명령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자가 명령법 이외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헬라시대에 이르러서는 희구법이 점차 쇠퇴하고 그 자리에 가정법이 대신 사용되곤 했기 때문에, 희구법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문맥에서 종종 가정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의미상의 차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희구법보다는 가정법이 친숙한 저자의 문체에 기인한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서법의 일반적 의미에 몰두하여 해당 서법이 사용되는 문맥이나 저자의 문체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보다 유연하고 정확한 주석에 이르기 힘든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¹¹⁾ 아래에서는 버튼(Ernest. D. W. Burton)의 설명 방식에 따라,¹²⁾ 주절(principal clause)에서 사용되는 서법과 종속절(subordinate clause)에서 사용되는 서법으로 나누어 각 서법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서는 주절에서 사용되는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447. 물론 동사 분해의 정확성 여부나 본문비평적인 난점들 등과 같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직설법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자주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10)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915.

11)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448.

12) 주절의 경우 대체적으로 서법이 가진 일반적인 의미나 용법이 유지되지만, 종속절의 서법은 그 종속절이 어떤 기능(목적, 결과 등)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81 이하.

주절에서의 직설법

직설법은 일차적으로 사실에 대한 별도로 한정되지 않은 확인(unqualified assertion)이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질문(simple question)에 사용되는 서법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의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어떤 제한적인 진술이나 조건 등이 없는 단순한 확인이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헤롯의 질문인 *ποῦ ἔστιν ὁ τεχθεὶς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역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신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뜻의 단순 사실에 대한 질문이다.

직설법은 한정적인 확인을 포함하는 주절에서 실질적으로 그와 동등한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사실에 대한 확인은 모종의 조건으로 한정되기도 하지만, 직설법으로 묘사되는 행동이나 상태는 사실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8절의 *ἐὰν μὴ νίψω σε, οὐκ ἔχεις μέρος μετ' ἐμοῦ*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나눌 분깃이 없다”라는 뜻으로, 분명하고 명확한 확인을 표현하는 직설법의 용법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¹³⁾ 이 경우 “너는 분깃이 없다”라는 확인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로 제시되고 있다.

직설법이 *ἄν*(동사의 동작이 일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불변화사, 한 단어로 번역이 불가능함)이나 *εἴθε*(성취되기 힘든 바람을 표현하는 불변화사, “would that?”[~라면 얼마나 좋을까?] 등

13)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915.

으로 번역됨) 등과 같은 불변화사에 의해서 한정되는 경우, 직설법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 외에 바람직한 상황(desirability), 있을 법 하지 않은 상황(improbability) 등의 다양한 음조를 표현하기도 한다.¹⁴⁾ 뿐만 아니라 미래 직설법은 단순한 확인적 의미 이외에도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¹⁵⁾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기원이나 의지 등을 표현하는 다른 서법과 비교할 때 직설법은 화자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는 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절에서의 명령법

명령법은 일차적으로 명령(command)이나 권고(exhortation)를 위해서 사용되는 서법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2절의 $\tau\omega\ \alpha\iota\tau\omicron\upsilon\eta\nu\tau\iota\ \sigma\epsilon\ \delta\acute{o}\varsigma$ ($\delta\acute{\iota}\delta\omicron\mu\mu$ [to give]의 단순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너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주라!”)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tau\omicron\ \pi\nu\epsilon\upsilon\mu\alpha\ \mu\eta\ \sigma\beta\acute{\epsilon}\nu\nu\nu\tau\epsilon$ ($\sigma\beta\acute{\epsilon}\nu\nu\mu$ [to extinguish]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모두 명령이나 권고의 의미를 전달한다.

-
- 14) 고전 헬라어에서 미완료나 단순과거는 불변화사 $\acute{\alpha}\nu$ 과 함께 사용되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발행하곤 하는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이러한 용례는 주절에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조건절에서 불변화사 $\acute{\alpha}\nu$ 과 함께 사용되는 미완료나 단순과거의 용법은 주절에서 사용되는 용례의 흔적을 보여 주는 것이다. 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13.
- 15) 미래 직설법의 일반적인 용법인 예견적 미래(the predictive Future) 외에, 명령적 미래(the imperatival Future), 심의적 미래(the deliberative Future), 격언적 미래(the gnomic Future) 등 미래 직설법의 특별한 용법과 용례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헬라어 문법 지상 특강(5): 미래 직설법,” 『성서마당』 85호(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8년 봄), 116-22를 참조하라.

아울러 명령법은 간청이나 기원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명령법은 동의를 표시하거나 전제(hypothesis)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의 일부인 *πάτερ ἅγιε, τήρησον*(*τηρέω*[to keep]의 단순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αὐτοὺς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사용된 단순과거 명령법 *τήρησον*은 기원에 사용된 명령법의 예이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의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λύσατε*(*λύω*[to loose]의 단순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τὸν ναὸν τοῦτου καὶ ἐν τρισὶν ἡμέραις ἐγερῶ αὐτόν*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제3일에 일으킬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 예수는 청중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법은 어떤 시제든지 간에 분명한 명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의존적인 서법(직설법을 제외한 명령법, 가정법, 희구법)의 시제가 가진 독특한 의미이다.¹⁶⁾ 그러나 금지 명령의 경우, 명령법이 사용되면 거의 대부분 현재 시제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16)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직설법을 포함하여 모든 서법의 시제가 일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동작의 종류이다. 시간적인 차이는 직설법에서만 구별된다. 앞의 각주 8 참조.